



기보배 '양궁 샷별'서 '세계 신궁' 되다

〈광주시청〉

월드컵대회서 단체·혼성·개인전 3관왕 명중...남자부 임동현 개인전 금

기보배(광주시청·사진)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양궁연맹(FITA) 4차 월드컵에서 3관왕에 올랐다.

기보배는 4일 중국 상하이 유안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메달 경쟁자인 인도의 쿠마리 데피카를 세트점수 7-1(29-27 29-27 28-28 30-27)로 완파했다.

기보배는 태극마크를 단 이후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타이틀을 잡았다.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기보배는 앞서 열린 단체전

과 남녀혼성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등극했다.

기보배는 곡성 출신의 주현정과 윤옥희로 팀을 꾸린 여자 단체전에서 이번 대회 주최국이자 라이벌인 중국을 222-217로 제압했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3차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단체전 금메달을 가져가며 세계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기보배는 남녀 혼성경기 결승전에서도 이창환과 호흡을 맞춰 미국을 151-146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

했다. 기보배는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생애 첫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대표팀 막내, 115명이 참가해 32명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1차전에서 3위로 통과한 후, 16명을 선발하는 2차전에서 1위에 오르며 일찌감치 대표팀 합류를 확정 지었다.

지난 2006년 안양성문고를 졸업한 기보배는 광주 여대 김성은 감독에 의해 스카우트 돼서 광주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보배는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

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국제대회에서 물오른 실력으로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한편 기보배를 앞세운 한국은 남녀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 4개,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1개, 여자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임동현은 남자부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선배 이창환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6-5(27-27 29-25 28-29 27-29 30-29)로 이겼다.

특히 임동현은 이번 대회 예선 라운드(70m 72발)에서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여세를 몰아 금메달까지 따내며 자신의 전성기가 왔음을 재확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아기호랑이' 한승혁·홍건희 롯데전 시구·시타로 첫 선



한 유창식보다 잘하겠다

홍 윤석민 선배 답겠단다



〈한승혁〉 KIA 타이거즈 마운드의 새로운 피 한승혁(덕수고)과 홍건희(화순고)가 광주 나들이에 나섰다.

KIA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 2011년 신인인 두 '아기호랑이'가 지난 3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시구·시타자로 나서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다.

메이저리그 진출설로 진로가 불투명했던 한승혁은 1라운드에서 KIA의 깜짝 지명을 받았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로 'KIA 강속구 군단'의 일원이 된 한승혁은 왕년의 배구스타 한장석 전 대한항공 감독의 아들로도 화제가 됐다.

두 체육인 부자는 3일 광주 나들이에서도 함께 했다. 한 전 감독은 "선수시절에도 광주

를 많이 찾았고, 지난해 무등기때도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왔었다. 광주를 다시 찾은 느낌이 너무 좋다. 명문 팀에서 아들이 야구를 하게 돼 영광이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1라운드 지명을 받은만큼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답게 잘 해나가기 바란다"고 광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같은 체육인으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상 없이 선수생활을 하는 것'이다.

한승혁은 실력으로 '한장석의 아들'이 아닌 야구 선수 한승혁이 되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을 하던 한승혁은 "부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광주일고 유창식

과 비교해서도 자신감이 있다. 몸이 좋아지면 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평가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한승혁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온 홍건희는 부드러운 투구폼과 예리한 슬라이더로 '제 2의 윤석민'으로 손꼽히는 기대주.

홍건희의 톨모델 역시 윤석민이다. 홍건희는 "윤석민 선배의 밸런스가 좋다고 해서 투구하는 것을 많이 보고 공부했다"고 말했다. 라이벌은 입단 동기 한승혁이다.

홍건희는 "1라운드 지명을 기대해서 아깝기도 했지만 한승혁과 좋은 경쟁을 펼쳐 내년 시즌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바닷속으로

5일 속초에서 열린 2010년 코리아스피릿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트라이애슬론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수영종목 경기를 위해 청호동 앞바다에 뛰어든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왕중왕전' 결승 진출

고교야구 최강전 4강서 제물포고 7대5 꺾어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최강전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고가 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KBS 초청 고교야구 최강전 준결승에서 3타점을 올린 이현동의 활약을 앞세워 미추홀기 챔피언 제물포고를 7-5로 꺾었다.

1회 광주일고가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무사 1·2루에서 투수 이현호의

실책으로 만루 기회를 잡았다. 지명타자로 나온 유창식의 밑어내기 볼넷으로 선취점을 얻은 광주일고는 이현동의 싹쓸이 2루타로 4-0을 만들었다.

광주일고는 6-5까지 쫓기기도 했지만, 8회말 1사에서 안타를 치고 나간 이현동의 도루와 상대 중견수의 실책으로 1점을 더하며 승부를 확정 지었다.

6회초 6-0으로 앞선 1사 만루에 등판한 광주일고 에이스 유창식은 3과 3분의 2이닝동안 탈삼진 5개를 뽑아 냈지만 6피안타로 5실점(4자책점)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말 리그제'를 기념해 개최됐으며 올 시즌 전국대회 우승팀 8개팀이 초청을 받았다.

결승전은 11일 오후 2시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

박찬호 무자책점 행진 끝

워싱턴전 10이닝 2안타 1실점

박찬호(37·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무자책점 행진을 8경기에서 마감했다.

박찬호는 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1-8로 패색이 짙던 8회 등판, 1이닝 동안 안타 2개를 맞고 1점을 준 뒤 내려왔다.

4.63까지 떨어졌던 평균자책점은 5.44로 다시 올랐다.

박찬호는 1사 후 이안 데스먼드에게 우전 안타를 맞은 뒤 계속된 2사 2루에서 마이클 모스에게 중전 안타를 내줘 실점했다. 안타를 맞은 공은 싱커와 슬라이더 등 모두 변화구였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뉴욕 메츠와 경기부터 이어온 무자책점 행진도 8경기에서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장애인체전 오늘 대전서 개막

광주 21개 종목 360명·전남 23개 종목 335명 참가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6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5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10일까지 대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개 정식종목과 1개 전시종목에 675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 '화합과 희망의 한마당'을 연출하게 된다.

광주는 21개 종목에 360명(선수 271명·임원 8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순위 7위에 도전한다.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내건 전남은 23개 종목에 335명(선수 239·임원96명)이 참가한다.

오는 12월 2010 광주여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3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베이징올림픽 사격 50m 소총 3자세 결승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던 이윤리가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여자 장애인수영의 '얼짱 스타' 김지은(부산)과 남자 장애인육상의 간판 홍석만(제주) 등도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 행사에서는 지난 3일 은퇴식을 갖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대성 불패' 구대성과 대전 출신의 양궁 국가대표 이흥구가 성화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eel Motel

1개실 1투차
평동무인텔!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www.feelmotel.kr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주세요!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